

《고맙습니다!》

정령 감격이 없이는 들을 수 없었다. 눈물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황홀한 10월의 밤 하늘에 울려 퍼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절절하고 눈물젖은 그 말씀. 《고맙습니다!》

은 나라의 마음이 뜨겁게 끓이치는 이처럼 척하고 환희로운 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전체 인민에게 무슨 말씀부터 드렸으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 하시며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날인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더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하실 때, 무엇보다 먼저 오늘 밤부터 주시게 하시던 모든 사람들이 부병무탈해주시지 않길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던 때, 영광이 울며있고 새찬 격정의 파도도 출렁이였다.

세상을 무성케 휩쓸고있는 악성전염병과 혹독한 자연의 재난으로부터 온 나라 인민 한사람한사람을 소중히 지켜 주시고 혈혈이로 따듯히 보살펴주시고, 그들모두에게 이렇듯 환희로운 승리의 날, 경축의 밤, 진정한 인민의 명절을 마련해주시기도 오려려 인민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자애로운 어머니 김정은원수님.

참으로 위대한 덕망을 지닌분이다.

이 행성의 국가지도자들중에 인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지도자는 없을것이다.

하나 그들중 어느 누가

이렇듯 인민에게 고마움의 사랑과 진정을 쏟아부으셨었는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고도 인민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이런 령도자, 이런 고마운분이 세상 어디에 또 있었나.

진정 인민으로부터 고마움의 큰절을 받으셔야 할분은 불보다 뜨거운 심정으로 인민을 품어안으시고 심신을 깡그리 기울여 인민을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자애로운 우리 원수님이다.

그이께서 10월의 경축광장에서 인민에게 하신 고마움의 인사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의이다.

공화국민들은 오늘도 잊지 않으셨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맞이하는 경축광장의 높은 연단에서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이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었고 하시던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 무라해 나 아가지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

열사복 무라해 그 성스러운 부름과 함께 흐르는 이 땅의 날과 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정의 령도자.

그에게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정치적이거나 령도자의 의무기 전에

황심이고 친롭이다. 그의 사랑과 정은 인민의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들었다.

멀고 외진 곳을 가림없이 따뜻한 빛으로 흘러들고 제 일 아끼고 고생을 많이 겪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손길로 제일 먼저 안겨들었으며 누구보다 힘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가슴마다 더 큰 힘과 용기로 솟아올랐다.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였다. 문명의 새 거리, 궁궐같은 새 집들에 과학자, 교육자, 근로자들을 제일 먼저 안겨 주시였다.

그이의 사랑과 정은 인민이 아플 때 더 뜨겁게 품어주었고 더 어려울 때 더 억센 손길로 인민을 이끌어주었다.

재난과 시련이 편이여 들이 닦았던 이해의 날과 달들이 다시금 돌이켜진다.

세기를 침체와 불안에 빠뜨리고 인류에게 불행의 눈물과 영리멸의 고통을 몰아온 악성전염병대재앙도 유독 그이께서 침착해들어주시였다.

전례가 없게 편이여 열린 당과 국가의 중요회의들에서는 인민의 생명안전문제가 첫 의제로 토의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강력한 조치들은 공화국민들에게 지극히 큰 위로를 주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도 행복의 웃음처럼 보이는 이 땅의 평온을 시샘하듯 류레없이 련속 들이닥친 자연의 대재앙은 왜 그리도 심심조았단나.

대풍, 폭우, 산사태... 하지만 자연의 광란이 활취고

간 그 자리마다에서는 가산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의 사랑에 목매어 흘리는 고마움의 눈물이 새겨졌다.

큰물이 모든것을 삼키며 힘줄어간 대형리의 험한 감정을 품어놓은 원수님, 흉탄벽이 된 차문을 열고 나서신 그이를 에워싸고 수재민들은 무서운 재난과 불행속에서 운명의 어머니를 제 일 먼저 비운것이 너무나 꿈만 같고 너무나 감격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평양항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기다린다고 하시며 폐허의 잔해를 헤치시고 함경남도를 찾으시어 한자한자 새기신 공개서한을 받아들았을 때 인민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였다.

이 나라의 인민 어느 누가

갑랑길을 헤치며 피해지역을 밟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발에 묻은 감랑겨를 닦아드리진 있었으며 태풍피해가 가지도 않은 북변의 돌서덜길을 걸으실 때 깔려진 벽돌조각을 치워드린 적이 있었는가.

오시어서는 식량과 의약품, 생활필수품보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전보다 더 크고 훌륭한 새 집을 안겨주시고 하시든 하듯 같은 사랑, 해빛같은 것들을 알고 립시거처지에 띄운 노래를 벗겨가지고 내의바람에 뻗말로 허리치는 감랑을 헤치며 달려간 대형리의 농장원들, 그속에서도 나래가 젖을가봐 머리우에 높이 들

고 한달음에 달려와 원수님, 다시는 험한 길을 걸지 마십시오, 우린 일없습니다라고 거듭 아뢰인 소박한 인민들, 차는 떠났으나 인민들은 나래를 들고 계속 원수님을 따라라고 원수님께서는 달리는 차를 세우시고 일없이 어서 돌아가라고 거듭 이르신 그 화복은 격정의 눈물없는 진정 다 새길수 없다.

그날 한 너인은 말했다. 《우리 원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찔었습니다. 글썄 내가 왜 이 나라를 가지고 갔을가요. 이불을 가지고 달려가 원수님 가시는 험한 길에 깔아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자꾸만 이 마음을 허십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폭풍길, 사치판도 서슴지 않는 원수님의 원수님시기에 가시는 길에 비단필을 깔아

드리고 꽃주단을 펼쳐드리고 싶은것이 이 나라 인민의 진정이다.

오로지 어머니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을 천만군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시기에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난 고인을 더없이 무상의 영광으로 보내고 인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나갈것이라고,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던 것이다.

인민을 위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시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여 공화국의 인민들은 역경속에서도 재난속에서도 무병무탈하여 10월의 환희로운 광장에 승리의 모습으로 당당히 설수 있는것이 아닌가.

이처럼 인민으로부터 고마움의 큰절을 받으셔야 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시지만 그이께서는 수령님도 장군님의 마음속이 합쳐 자신의 진정을 《고맙습니다!》, 이 뜻깊은 말씀에 담으시였다.

정령 그이는 이 나라 인민이 한생 마르고 모실 자애로운 어머니, 조국과 민족의 운명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다 맡길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우리 령도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으로 행복한 인민, 그이의 신념과 의지로 강직한 인민,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인민은 가슴속에 차넘치는 존경과 흠모를 한껏 담아 목청껏 외친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김춘경



무진막강한 근력의 과기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최경적당군에 장성강화된 공화국군대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명예기병중대의 행진으로부터 시작된 열병식에서는 특해공군의 열병중대들, 맹고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중대들과 진분병중대들, 각각 군사학교중대들과 로동적위군과 붉은청년군위대중대들을 비롯하여 각 열병중대들이 자랑찬 전투적행진과 새겨진 성스러운 군가들을 휘날리며 보무당창회 행진하였다.

서리밭 총검을 비껴는 인민군장병들의 썩익한 열병행진에 이어 각종 현대적무장장비들이 장쾌한 돌음을 울리며 광장을 누비였다.

인민군대전투력의 상징이고 무적주력인 주력무장중대, 최강의 무력으로 자라난 미녀운 포병부대, 최신형의 전략무기체계를 완비한

무적장군의 위용을 과시하며 광장을 누빈 로켓중대들...

무면 불수록 너무나 장하고 가슴부듯하게 해주는 시험발사장들도 있었다. 지척에서 열병대오와 군사장비들을 바라보는 경축대표들의 얼굴에서도, TV앞에 마주앉아 시종 열병식장면들에서 눈물찌 못하는 온 나라 남녀로소의 얼굴들마다에도 경탄과 기쁨의 미소가 어려였다.

우리 군대가 정말 강하다. 저무장력이면 무서울게 없고 누구도 우리를 다칠수 없다. 정말 대단하다.

저마다 감탄을 리친 공화국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의 과시였다.

그럴수록 모두의 가슴을 더욱 울려준것은 이 위대한 근력을 마련해주시려고 위대한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공화국무력은 저절로 오늘에 이른것이 아니다. 그 상상성을 초월하는 질적인 변화와 발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주곡함으로, 희생적인 헌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안위를 굳건히 지켜주시려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평화번영과 복락을 위하여 인민군부대들

을 쉬임없이 찾으시고 각종 군사훈련들도 지도해주셨으며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새 병기제작을 위해 위험천만한 시험발사장들도 찾아주신 원신님의 그 길에서 오늘과 같이 세상이 주목하는 최첨단 무기들이 태어나고 인민군대의 위력이 최대로 강화되게 된것이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할하려는 적대세력의 침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국가발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울으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방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서하신 연설에서 우리 당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라의 독립과 우리 령도의 믿음직한 안전을 보장하며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와 미래를 수호해나갈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최정예군대로 자라난 조선의 군대.

이 강군이 있어 공화국은 더욱 크적되고 승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배길남

각계층 인민들의 소감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수도의 광장에서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TV화면으로 보면서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의 모든 전투원들이 격정에 겨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평양, 우리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계시는 그 따뜻한 삶의 품에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고싶었던그이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이 10월의 경축광장을 더욱 빛내주는 길이기도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으로 주재없이 발걸음을 돌린 우리들이다.

그런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성스러운 당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영광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려하지 않고 스스로 또 다른 피해복구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긴 애국가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시였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이 또 어디에 있었는가.

정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수도당원들, 혁명전사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어주시는 은혜로운 운명의 태양이다.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을 언제나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말은 피해복구사업을 최급가속도로 추진하여 마무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였다.

제1수도당원사단 소대장 김복범

우리의 쾌일은 더 행복할것이다

인민의 생명안전과 행복을 위한 길에 바치신 자신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하시고 오려려 령도자의

의 품속에서 복단을 누려가는 인민들에게는 거듭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그이의 갈리신 음성에서 누구나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전체 인민이 견제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고 하시며 우리 인민들을 하늘로 떠받친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기에 우리의 래일은

주체의 완결을 따라 곧바로

우리 혁명의 년대들마다에서 조선청년의 슬기와 기상을 안고 수천수만의 불길들이 경사스러운 10월의 밤하늘가에 거세차차 타 번졌다.

10월의 광장을 행진하며 우리들이 역세에 들어잡았던 불꽃바다에는 오직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 50만 청년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당의 믿음이면 지구도 돈다는 담대한 배짱,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바다도 매우

더 밝고 행복할것이다. 이것이 10월의 대추전장에서 리친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의 웨침이다.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 사이에 모시고 있는 수도시민의 남다른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80일전투에서 선봉대, 기수가 되겠다.

평양시 서성구역인민위원회 책임위원 리련희

수필 온 나라가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을 시작하시자마자 저희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견줄수 없었습니다.》

《말 그이께서 연설하시는 기간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짝 메어올랐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푸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던 영광의 그 자리에 나와 우리 학생들도 서있었던 것만 같아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광장에 울려 퍼진 열화같은 인민사랑이 자자구구 울려넘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에 접하고 지금 이 땅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격정에 겨워하는 이야기들이다.

어제 그렇지 않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절절한 령도자의 뜨거운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을 공화국민들모두가 가슴이 넘치도록 받아들였다.

새겨붙듯 이 가슴도 후덥게 달아오르고 눈물은 찌릿이 젖어 든다.

지구상에 나라는 수백이여도 과연 어느 나라 령도자가 이런 하늘의 고백을 인민들앞에 스스럼없이 내놓은적 있었는가. 이 세상 어느 나라 국가수반이 인민들의 건강문제를 두고 이처럼 눈물을 적시며 뜨거운 인사를 보낸 레가 있었는가.

사람들은 흔히 눈물이라고 하면 슬프부터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 통곡과 탄식소리를 들을수 없었다. 오려려 기쁨과 감격의 눈물속에 해가 뜨고 날이 저물었다. 사면팔방으로 조여드는 무서운 병마의 포위속에서도, 자연의 무서운 광란속에서도 온 나라 인민들이 오늘과 같은 행운을 지닐수 있었던것은 인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헤어놓고 순간도 생각할수 없다.

올해 년초부터 뜻하지 않게 발생한 악성비루스의 무서운 재앙에서 사랑하는 인민들을 구원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 바치신 낫과 밤은 그 얼마이며 몸소

지도해주신 주요회의만 해도 그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보장에 총력을 집중할때만 하여 강조하시고 취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 이 시각에도 악성전염병은 좀처럼 수그러들줄 모르고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사정없이 몰아가고있다.

이로 하여 수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통속에 몸부림치고서 사망하는 혈육들의 주검앞에서 피눈물을 뿌리고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슬픔을 가시주지 못하고있다.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폭포처럼 흘러넘치는 공화국에서만이 인민들모두가 무병무탈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려가고있다.

인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사복무하시든 그이의 헌신은 온 나라를 울리고 그래서 인민들의 눈물로 흘러내리는 고마움의 눈물, 격정의 눈물은 바다를 이루고있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불과 몇달전 련속 들이닥치는 미증유의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집과 가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한지에 내앉았지만 누구도 슬픔과 비애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지금도 눈물범벅이 되어 웅크린 대형망의 평범한 농장원의 목소리가 가슴을 쿵쿵 울려준다.

《저는 우리 마을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아첨차를 진창속에서 멀어트리 평범한 농장원입니다. 그런데 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려려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인민을 이처럼 떠받치는 분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저 눈물만 쏟아집니다. 원수님생각을 하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나오고 마음을 진정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형리 농장원의 진정한 것이다. 공화국에서 별도로 알려지지 않았던 강북땅과 김화땅 아니 전국적 피해지역 주민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한숨에 안겨오는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다.

《그 진정이 모이고 모여 흘러온 날과 달은 인민의 뜨거운 격정, 고마움의 눈물속에 흘러왔다.》

정녕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계시기에 인민이 흘리는 감격의 눈물, 행복의 눈물은 영원히 마를줄 모를 것이다.

유금주

조선의 축도

조선로동당창건 75돐을 경축하는 10월명절에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열병식과 경축대회, 대중시위, 청년학생들의 해방행진 및 축하야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장중하고 경쾌하고 썩익한 군가에 맞추어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창회 행진하는 열병대오의 도도한 흐름, 수천수만의 각계층 군중들이 발걸음들진 나아가며 열광의 환희로운 경축광장의 장엄하고 환희로운 화복은 령도자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는 공화국의 모습을 다시금 단천하에 과시하였다.

령도자는 인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애국의 승결과 발걸음을 함께 하는 세상에 전무후무한 조선의 혼연일체. 혼연일체는 공화국의 최강의 힘이고 불패성의 원천이다.

75성상의 조선로동당력사가 보여주시는것처럼 혼연일체는 조선만이 가진 특별한 무기이고 모든 것의 기적과 승리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전세가가 지켜온 이변의 성대하고 뜻깊은 당창건 75돐 경축행사들도 혼연일체의 힘이 안아온것이다.

공화국인민이 10월의 경축광장으로 오기까지는 부닥치는 도

로고있고있는 전세계적인 대류행진 열병위계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병무탈할수 있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고 선제적이며 강력한 방역대책을 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령도, 령도자의 의도를 받들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서고 인민적인 자각적일체성이 의와어 이룩된 방역전에서의 기적적 승리이다.

승리 그뿐이랴. 뜻밖에 들이닥친 자연의 재앙으로 집과 가산을 잃은 피해지역 인민들의 불행과 가슴아파하시며 큰불피해복구를 잘하여

화가 복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과 군대가 단결하여 이룩하고있는 피해복구건설에서의 놀라운 성과이다.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친 혼연일체의 위력이 얼마나 강할가. 10월의 대정축전은 다시금 명명백백히 보여주었다.

령도자는 인민들에게 무병무탈해주어 고맙다고 마음속 진정을 리치고 인민은 자애로운 령도자를 우리 령도의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경축광장의 그 광경은 세상사람들 누구나 감동의 눈물, 격정의 목메임이 없는 불수 모든 사람들은 무병무탈할수 있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고 선제적이며 강력한 방역대책을 세우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견지명과 비범한 령도, 령도자의 의도를 받들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떠서고 인민적인 자각적일체성이 의와어 이룩된 방역전에서의 기적적 승리이다.

승리 그뿐이랴. 뜻밖에 들이닥친 자연의 재앙으로 집과 가산을 잃은 피해지역 인민들의 불행과 가슴아파하시며 큰불피해복구를 잘하여

한정범